

특집 : 성령과 삶

## 성령과 그리스도인

박 도 호  
(조교수, 교의학)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주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성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분은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시다.”(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381, A.D.)<sup>1)</sup> 그러나 성령과 그리스도인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선자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선자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시대에 성령에 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신유와 예언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적 운동으로 인해 성령이 교회생활에서 지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다.<sup>2)</sup> 만일 우

1) 헬라어 원본을 원한다면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2, *The Greek and Latin Creeds*(P.Schaff, ed.,6th ed.,Grand Rapids:Baker,1983(reprint of 1931 ed.))pp.57~58를 보라. 지금 보통으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이 신조의 원래의 그리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역사적 문제는 여전히 논쟁점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서는 J. N. D. Kelly의 *Early Christian Creeds*(3rd ed.,Harlow, Essex:Longman,1972)pp.296~331을 보라. Kelly 자신의 결론에 의하면, “그 결과 ‘C’신조(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필자註)는 어느정도의 정당성을 갖고 150명의 교부들(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참석했던, 필자註)의 신조임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이밖에 다른 신경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p.331).

2) 오순절적, 카리스마적 운동의 기원은 J. Hollenweger의 *The Pentecostals:The Charismatic Movement in the Churches*(Minneapolis : Augsburg, 1972(원본은 독일어로 1969년도 판임)에 묘사되어 있으며 F.D.Bruner는 *A Theological Holy Spirit: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Grand Rapids:Eerdmans,1970)에서 오순절 교리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오순절 주의에 대한 철저한 주석적 비평에 대해서는 James D.G.Dunn의 *Baptism in the Holy Spirit: A Re-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 of the Spirit in relation to Pentecostalism today* (London : SCM Press, 1970)을 보라.

리가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초대교회가 했듯이 기적을 행하기를 구해서는 안되는가? 우리 교회와 개인 생활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여전히 성령론을 포함한 모든 교리에 대한 우리의 표준으로 남아있다.

### I. 성령과 말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1647)는 우리에게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와 고대 작가들의 견해와 사람들의 교훈과 사적인 의견이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의 판결에 의존해야 한다. (1장 10항)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단지 성경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이끌린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흡내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울 당시 거짓사도가 나들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적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11:13,14)라고 한다. 이 거짓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힘있는 사역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았다. 바울은 그들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한다. (고후11:4)<sup>3)</sup> 진정한 예

3) F.W.Grosheide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바울이 묘사하는 가정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다른 예수”, “다른 성령”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De Tweed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Kampen:kok, 1959), pp.301~305). 이것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바울은 정말 잘못된 교훈이 전파되는 것을 염려한다. 이 거짓사도들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을 전파하는 유대화시키는 자들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뿐만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잘못 전하고 있었다. C.K.Barrett가 주석하길 “바울의 상대편은 같은 예수를 달리 이해하게끔 전하고 있는데(즉 16절의 육신을 따라) 이것은 결국 다른 복음과 다른 종교적 체험으로 끝난다”고 한다. (*A Commentary*

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항상 진정한 성령의 참된 사역과 동행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이다.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기 때문에(딤후 3:16, 베후 1:20, 21) 그분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으신다. 성령과 말씀은 나누어질 수 없고 항상 조화를 이루며, 항상 서로 일치한다.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는 “신비주의자들”(spiritualists)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은 “외적인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을 거부하는 대신에 “내적인 말씀”이라는 성경을 가졌다. 그들은 더이상 성경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루터와 칼빈이 이런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했겠는가!<sup>4)</sup>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신 자신의 말씀 즉, 무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루터와 칼빈은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어떤 그룹들이 영국에서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성령의 사역인 “내적 조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이 “내적 조명”을 받으면 기록된 성경인 “외적 조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 비성경적인 생각에 동의하기를 거절했다. 만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조명인 “내적 조명”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친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진리를 취해서 그것을 택자의 삶 속에서 유효하게 하신다. 그때부터 신자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양육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생활의 계속적 원천이다!

“내적 조명”<sup>5)</sup>을 강조하는 퀘이커 교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실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New York:Harper & Row,1973), p. 275.)

4) “신비주의자들”(Spiritualists) 가운데 한 사람인 Karlstadt에 대해서 말하길, “그는(Karlstadt, 박도호註) ‘성령, 성령,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방편(말씀과 성례, 필자註)을 던져 버린다”고 했다. (“Against the Heavenly prophets,” in *Luther’s Works*, vol.40(C.Bergendorff,ed.; Philadelphia:Muhlenberg Press,1958) p.147). 그리고 루터는 그의 “Sermon in Pleissenburg”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J.Dillenberger, ed.; Garden City:Doubleday,1961) p.243.)

5) 퀴커 혹은 “프렌드파”(Society of Friends)의 창시자는 George Fox(1624 ~1691)였다. “길고 고통스런 투쟁끝에 1646년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적 빛’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교회 출석을 거절하고 당시의 종교적 논쟁을 하찮은 것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1647년 전리란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다”(Fox, George, “i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제적인 경험"과 "확실한 지식"과 "놀라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겸증되지 않은 경험, 지식, 감정은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깨달음과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불교신자의 "경험"을 수락하는가? 자기의 암을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치료받았다는 로마 카톨릭 신자의 "지식"을 받아들이는가? 또 몽몬교나 여호와의 증언이나 통일교 신자의 감정을 받아들이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건 왜 그런가? 소위 체험, 지식, 감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실재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직 성경만을 말이다.

성령과 성경은 예외없이 언제나 함께 간다. 성령께서는 성경안에서 말씀하신다. (웨스트민스터 1장 11항)<sup>6)</sup> 그리고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결코 스스로 개인이나 교회생활 속에서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꺼이 우리의 신앙, 체험, 지식과 감정을 "최고의 재판관"인 성경에 의해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꺼리는 개인이나 교회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 2.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다

우리는 "반 교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많은 복음적인 교회조차도 "교리"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중요치 않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니 얼마나 비극적인가?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창조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진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겠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모든 말씀보다 먼저 성부에게서 나신 자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 중의 빛이요, 참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요, 성부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신 분이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sup>7)</sup>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며

Zondervan, 1974) p. 383.)

6)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일부분에만 영감을 준 것 같이 해석해서는 안된다.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다.

7) 위대한 교부 Athanasius(약 296~373)는 성자께서 성부와 동질(homoousios)일 뿐만 아니라 (두분이 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짐)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라고 주장했다. "Athanasius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완전한 신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라는 것이다." (J.N.D.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5th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8) p. 257.)

삼위일체 가운데 3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가정에 빛을 계속 만들어 주는 전기와 같은 모종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성경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우리가 전기의 느낌은 슬프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은 "슬프게" 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lupeō, 슬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sup>8)</sup>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성령에 관한 토론에서 너무나 자주 그분을 경배를 받는 귀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주 그분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보류하실 수도 있는 주권적인 인격임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와 기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전기불을 "켜듯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필요도 아신다.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전적으로 순결하여서 이기적인 동기나 불결한 사상을 용납치 않으실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며 인격이라는 사실은 그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중심이 된다. 성령의 인격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바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 19) 여기서 이 문맥은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한다(고전 6: 18).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의 몸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은 은혜로 우리의 천한 몸속에 거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글자 그대로 신체적인 육체에 거하시지만 우리 마음과는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아는 것이 거룩과 현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동기가 되는가!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대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분을 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신 주로서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태초에 만물 창조시 도왔던 하나님으로(창 1: 2) 또 존재하는 것에 모든 생물학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시 104: 30) 알아

8)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W. Bauer, ed.; W. F. Arndt and F. W. Gingrich, rev., trans.; 2nd ed.;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79, 독일어로 1958년에 나온 제5판에서 번역함)에는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란 의미로 나와있다(p. 481). 그것은 또한 "화나게 하다, 초조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모욕을 주다"란 의미도 가질 수 있다. (p. 481)

야 한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시는 주권자시요 생명의 주시다. 구원의 은사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다른 모든 놀라운 은사까지도 즉 모든 좋은 은사가 그에게서 직접 온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sup>9)</sup>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분에게도 우리 생명을 끊임없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해야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Trinitarian life) 실로 아타나시우스 신경<sup>10)</sup>이 말하듯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1.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무엇보다도 반드시 보편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2. 누구든지 온전하고 순수한 이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3. 그리고 보편적 신앙은 이것인데 우리가 삼위인 한 하나님 그리고 통일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4. 그 격위들이 혼합되지 않고 (confundentes), 그 본질이 나누이지 않는다 (essence)
5. 왜냐하면 성부의 한 격위와 성자와 성령의 다른 격위가 있기 때문이다.

9) 설교에 대해서 John Murray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믿음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발견해온 바에 의하면, 말씀 선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은혜에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께 욕이 될 것이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1976) p. 140) 그러나 이것이 조심스러운 설교준비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즉 “우리는 말씀을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탐구한다. 그리고 그 수반된 능력은 차후의 말씀선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설교준비에도 불가결한 것이다.” (p. 141)

10) 비록 이 신경이 Athanasius의 이름을 가지고 또 그의 신학적 입장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G.J. Voss는 1642년 이 신경이 Athanasius에 의해 쓰여졌을 리가 없다고 제시했다. 즉 “거기에 대한 여러 요인 중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분명히 라틴어 신조(신경, 박도호註)이지만 아타나시우스 자신은 헬라어를 썼다.” (“Athanasian Creed”,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W.A.Elwell, ed.;Grand Rapids:Baker Book House), 1984) 그러면 누가 그것을 썼나? “보다 더 널리 주장된 학설 가운데 하나는 그 신경의 연대는 500년 경이며 작성된 장소는 Lerins의 신학자들과 아리우스주의와 네스토리우스주의의 특별한 신학적 문제의 영향을 받은 Gaul 남쪽 지역이라는 것이다.” (p. 93) L.Doeke教授가 여기에 동의한 바에 따르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특히 35절과 36절의 단어 선택에 네스토리우스의 교훈에 대처되는 사상을 위한 좋은 근거가 있다”고 한다. (L.Doeke, *Credo:Handboek voor de Gereformeerde Symboliek*(Amsterdam:Ton Bolland,1975)p. 30 ; 필자역). 또한 J.N.D. Kelly의 *The Athanasius Creed*(London,1964)를 보라.

6.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이다. 동등한 영광, 동등한 존엄을 가지신다.
- .....
23.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지 않고 단지 진행하신다(procedens)
24. 그래서 한 성부는 있지만 세 성부는 없고, 한 성령은 있지만 세 성령은 없다.
25. 그리고 이 삼위일체 속에는 서로에 대해서 앞서거나 뒤서는 것이 없고, 다른 격위보다 더 위대하고 멀 위대한 것이 없다. (nihil majus, auf minus)
26. 다만 전체 세 격위는 함께 영원하시고 동등하시다.
27. 그래서, 이미 말해왔듯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삼위 속의 통일 또 통일속의 삼위가 경배받기 원한다.
28.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Qui vult ergo salvus esse, ita de Trinitate sentia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고 정통신앙이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교리와 예배는 완전히 삼위일체적이어야 한다. 그때만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성령과 기적적인 표적

현대 오순절 운동이 주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적(방언으로 말하는 것, 치료, 예언)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묘사한 교회를 보라. 그 당시에는 방언으로 말하고 치료하고 예언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고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단지 전통적이고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평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를 믿는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한다.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기적을 믿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sup>11)</sup>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구약의 기적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를테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는 것(출14), 엘리야 당시 과부의 집에

11) 우리는 자유주의 신약 학자인 Rudolf Bultmann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게 된다. 즉 “전기불과 무선(라디오, 필자註)과 현대의학 그리고 의과의 발전물을 이용할 수 없다. 동시에 영과 기적의 신약세계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New Testament and Mythology”, in *Kerygma and Myth, A Theological Debate*(H.W.Bartsch,ed.,New York:Harper & Row,1961 ; 원래는 (1948년 독일어판임) p. 5 Bultmann은 단지 자기가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다시 말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서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차는 것(왕상17:16),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구원 받는 것(욘2:10)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읽은 모든 기적의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무 어려움도 없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마1:18~25),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요2:1~11),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부터 부활하신 것(마28 등)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행2:1~14)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 크나큰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성경의 시대로 국한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한다. 개혁주의 견해는(루터, 칼빈, 개혁주의 신조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특별히 구속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시대에만 한정된 것으로 본다.<sup>12)</sup> 성경은 구속에 대한 특별계시와 성취의 책이므로 그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선택된 중인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표시”이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은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원의 표시일 것이다.<sup>13)</sup>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마28:18)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14절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한다. 부활은 반복될 수 없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유일하게

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가장 요긴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을 지금은 그치셨다”고 한다.(제 1장 1항)

13) Herman Bavinck는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의의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예컨대 첫째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다. 주님의 종을 그리스도와 주 그리고 생명과 심판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다.(행2:36, 3:13~15, 5:31, 10:42등)…… 세째로 그의 중보사역에 대한 신적 승인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능력과 가치 또 아들의 ‘다 이루었다’는 말에 대한 아버지의 ‘아멘’을 선포하는 것이다.(행2:23, 24, 4:11, 5:31, 롬6:4, 10등)…… 다섯째, 용서와 칭의의 보장이다. (행5:31, 롬4:25), 여섯째 수많은 영적 축복의 원천이요 즉 성령의 은사(행2:33) 회심(행5:31) 영적, 영원한 생명(롬6:4 이하), 전체적 구원(행4:12)이다. 일곱째, 우리의 복된 그리고 영광스런 부활의 원리와 실현이며(행4:2, 롬8:11, 고전6:14등), 여덟째 사도적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 (고전15:12이하)”(Gereformeerde Dogmatiek, vol.3(Kampen:J.H.Kok 1976; 원래는 1906~1911년에 출판되었음) 필자역.

예증하는 것이다. 재림 곧, 계시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있을때까지<sup>14)</sup>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있는 부활은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지 사실 예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행1:9), 성령의 능력으로 밀미암아 일어나는 여러가지 기적은 구속과 계시의 증명이나 표시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야임을 증명하는 표시이었듯이 (이는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도 기적은 사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대행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논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시가 진행되는 곳에 기적은 있고 계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12절에서 사도와 기적간의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참으로 사도의 표(sémeia)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sémeiois)과 기사(terasin)와 능력행하는 것(dunamesin)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그들이 암수한 자들, 고전12:10)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계시의 행위로 사도적 교회와 함께 행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토대(엡2:20)위에 건설되어 있으므로 기적은 원칙상 그쳤다.<sup>15)</sup> 구속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취된다. 성경의 정경이 끝난 이후 계시는 재림 때까지 완결되어 있다.

14) “종말론의 극적인 요소 가운데 우뚝솟은 마지막 두 사건은 부활과 심판이다” (G.Vos, *The Pauline Eschatology*(Grand Rapids:Eerdmans,1961; 원본 계판은 1930년임)p.72) “바울에게 있어서(바울이 사용한, 필자註)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두번 째 용어는 ‘계시’(apokalupsis)라는 말인데, 이것은 테살로니카후서 1:7, 고전1:7, 3:13(롬2:5, 8:18)에 나타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일반적 배경(유대 묵시적, 註)은 예수께서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사라지는 것과 상호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전혀 다른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라가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약속, 다른말로 장차 그의 나타나심과 결부되었다. 그 재림은 성육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의 가장 중요한(par excellence)‘계시’가 된다”(pp.77, 78).

15) 칼빈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연결시켰다. 즉, “그러나(사도들이, 필자註) 암수함으로써 베푼 그런 기적적인 능력과 드러난 사역은 그쳤다. 그리고 그것들은 딱 한동안만 지속되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 왕국이 전례없는 그리고 이상한 기적에 의해서 밝혀지고 확대되는 것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그치셨을 때(기적을 행하는 것, 필자註) 자기 교회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의 장엄함과 말씀의 존엄성이 탁월하게 충분히 나타났음을 선포하였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2 vols.; J.T.McNeil, ed., F.L Battles, trans.; Philadelphia:Westminster,1960) 4. 19. 6, p. 2. 1454).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계속된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박도호註) 보기 때문에 믿는구나,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는 복되도다(요20: 29)”고 하셨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데 대한 예수 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능력있게 말하셔서 믿음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비록 자신이 계시를 주거나 기적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역동적으로 임재하신다.

#### 4. 성령의 사역 : 기본적 전망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 한다.<sup>16)</sup> 그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그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이상 외인이나 하나님의 적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사랑받는 친구이다. (갈4: 5; “아들의 명분을 얻음”, 롬5: 10;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요15: 15;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롬8: 29;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중에 맘아들”이심) 기독교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으로 교회안에서 다른 신자들에 대한 관계이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선행의 삶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게 하신다(마치 사도행전 16: 14에서 루디아와 같이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여”(롬8: 14)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분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롬8: 15)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

16) B.B.Warfield는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분리하는 자유주의자를 비판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 신앙의 원천이요 근본이요 또 내용으로서의 예수님과 분리시킴으로써 그들은 기독교와 결별해서 다른 종교를 선포하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더이상 그리스도께 짐작하거나 그분에게 자기 죄로부터의 구속을 기대하지 않을 지라도 좀 이상하고 혼란스런 사상으로 자기들이 여전히 크리스챤이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Christless Christianity”, in B.B.Warfield,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S.G.Craig, ed.;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0; originally article in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12)) p.318).

의 일을 생각”(롬8: 5)해야 한다.<sup>17)</sup>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요3: 6) 성령께서 우리속에 거하시기(고전3: 16)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롬8: 13) 죄와 쌔워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은유와 결제 말이다(갈5: 22, 23).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개인주의적은 아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즉 교회의 자체가 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성령으로 사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에 참여하게 된다.<sup>18)</sup>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12,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말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이상 이기주의나 이기적 욕망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서로에 즉 “하나의 몸에 있는 많은 지체끼리”(고전12: 20) 의존하게 된다. 성령의 “세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13절)는 것은 우리가 동료 신자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고전12: 26)

17)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는 특히 바울적이다. G.Vos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간단히 비교해 본다면 바울은 먼저 성령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널리 퍼진 일정한 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성부·성자와 나란히 그분과 함께 모든 점에 있어서 크리스챤의 필요한 신적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The Pauline Eschatology*, p.171)

18) 바울조차도 연합을 첫째로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을 끊는다. Herman Ridderbos에 의하면, “……죄의 교리에 있어서 거기에는 죄 가운데 결속된 커다란 공동관계 속에 개인이 포함되는 것은 지배적인 관점이 있듯이 새롭게 하는 교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그분에 의해서 나타난 새 창조 가운데 포함되고 참여하는 것이다.”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J.R.De Witt, trans.;Grand Rapids:Eerdmans,1975 ; orig. Dutched, 1966)p.206).

성령안에서의 삶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란 힘과 활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안에서 새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넓은 세상밖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 선교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원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의 명령은 오늘날 그의 모든 백성에게도 적용된다.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 19)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성령의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된 자들은 복음을 “땅 끝까지”<sup>20)</sup>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에 자신을 내 맡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의 핵심인데, 예수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온세상에 중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행1: 8)

우리는 비록 사도가 아니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지만 믿음에 의해서 이 선교의 성령을 받은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땅 끝까지” 전하라는 이 선교의 운동의 일부가 되는 “사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은 우리가 (중세의 수도사처럼)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성

19) 가정 교회들은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족적 특성으로 주어진 그 자체의 가정이 가장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그 속에서 그들은 공동으로 맷은 유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Grand Rapids:Eerdmans,1980)p.61).

20) Klaas Schilder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오순절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는데 즉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옛언약의 교회를 새언약에서 멀리하고 맷은 결박을 뗇어버려서 옛 종들이 새시대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지금은 성령의 물결이 세계로 흘러나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로 와서 Rotterdam과 Kralingen(Rotterdam 근처의 읍, 필자註)으로 들어가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Het gebod tot uitdrijving van de kinderen en de oorzaak der dienstbaarheid”, “종된 자녀와 그 원인을 내어 줄으라는 명령”, 이것은 Klaas Schilder의 Preken, (설교집) Vol. 2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30에 대한 설교 제목임(Goes:Oosterbaan & Le Cointre,1954) p.449) (필자註)

령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원래의 “문화적 사명”을 그들이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다. 성령의 사역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며 또 그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등동물을 지배하는 이 일이 중심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다스릴”것이다. 타락이후 이 사명은 죄때문에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한 언약으로 말미암아(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마지막으로 새언약 가운데서는 신약의 교회와 더불어 맷음)우리를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sup>21)</sup> 성령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은 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되기 위함이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세대를 전해 내려온 신앙의 운동인 가정생활은 성령의 사역의 특별한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맷으신 언약을 생각해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17: 7)라고 하셨다. 성령께서는 바로 개인이 아니라 부모와 그 자녀와 함께 온가족을 다시 세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고(18절) 하나님을 찬송하며(19절) 하나님께 감사하라(20절)고 한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안에서의 삶을 부부관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를테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해야한다(22절) 남편은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해야한다(25절) 부부관계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26, 27, 31절). 더 나아가서 성령안에서의 삶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 1)고 한다. 그리고 아버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또 아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21) 이것은 Klaas Schilder의 책 *Christus en Cultuur*(5th ed.;Franeker:T.Wever, 1978;same as 2nd ed.,1947)의 주제이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문화적인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경작으로 (in cultuur) 성장하고 사람들이 밟는 땅과 마음의 깊이, 식물과 북상하는 영…… 그리고 문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위치를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필자註) 그 질서와 함께 이러한 일의 원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되돌아 갈 때만 말이다.”(*Christus en Cultuur*,p.65) (필자역).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 : 4)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은 우리가 여러가지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생활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까지도 성령의 사역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물론 바울은 시편 2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메시야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 아들(즉, 메사야, 편지註)  
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  
가 굽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 2 : 10~12)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에 바빴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기"(마28 : 18) 때문이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을 믿음으로써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사도행전 25, 26장에서 바울과 어떤 세상의 위정자들 간에 특이한 대결을 볼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유대의 로마총독 베스도와 헤롯대왕의 반(半)유대인 장손인 헤롯 아그립바와 버니케 앞에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증명하고 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네가 나를 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행 26 : 28)라고 놓담할 때 바울이 대답하기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행 26 : 29)라 한다. 분명히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14절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돌이켰듯이 이 정치적 관원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열리도록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 : 1)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영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옹하는 자니라. (4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5 ~ 7절)

바울은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 짧은 귀절에서 네 번이나 말한다. 그러나 그는 로마 위정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틀림없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기도한 것은 당대의 세상의 관원들이 "그 아들에게 입맞춘" (시 2 : 12) 성령 충만한 통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럴때 그런 통치자들은 "성령이 가르친 지혜"(고전 2 : 13)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다.<sup>22)</sup>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와 버니케에게 증거한 것은 성령의 선교적인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분은 사람을 에덴동산에 있는 그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원래의 "문화적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정치적 권력은 성령의 권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조금 알 수 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롬 8 : 9) 신자 개인은 그가 가지는 모든 관계와 활동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격리된 개별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에 의해서 떨어나간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은 물론 모든 나라의 "왕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성령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온전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시야를 잃어서는 안된다. 믿음은 각자 신자의 삶 속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다. 바울이 로마서 8 : 1에서 "너희"가 성령안에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너희 각 사람"을 의미한다.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은 주를 찾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각자 모두에게 달려있다.

#### 5. 그리스도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 그 시작

세언약의 공동체는 믿는 자와 그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

22) John Murra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계시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설 정된 목표는 그리스도인 개인, 기독교 가정과 교회 뿐만 아니라 일개 기독교 국가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머리되심에서 나오는 책임과 의무는 분명한 그리고 한정된 자체 영역안에서 시민정부가 헌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가능과 행동조치가 그의 말씀에 포함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 질서의 철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The Christian World Order,"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1976) p. 365).

와 전도자를 파송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언약안에서 다음으로 선교를 통하여 퍼져간다.

세례받을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그것을 말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행 2:38, 39)

사도행전 16장에서 주께서 바울의 설교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이 일은 그녀의 가정에 중요성을 지닌다. 즉 그녀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행 16:15). 같은 장(章)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갇혔을 때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소리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그들의 자녀도 직접 포함한 것이다. 새언약에 포함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인 이 언약적 관계는 유아세례의 기본적 근거가 된다.<sup>23)</sup>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6번의 문과 답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

문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까지는 유형적 교회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 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없고, 양편 혹은 한편이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믿는 자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다!

그러나 언약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말씀 전파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산 믿음을 주는 일을 해야 함은 그들이

23) 칼빈은 언약과 유아세례의 필요성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자녀에게 까지 미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자녀들을 자비의 상징(세례, 菲자註)으로 인침을 받도록 교회에 바치는 것을 자기네들의 임무로 삼도록 하라. 그러므로 그들의 더 확실한 확신을 갖도록 하라. 이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눈으로 그 자녀들의 몸에 새겨진 주님의 언약을 바로보기 때문이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4, 16, 9, p.1332)

개인적으로 세례 받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sup>24)</sup>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주를 위해 교육할 것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알아야한다(엡 6:4). 바울이 에페소서 6장 1절과 클로세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을 믿는 자로서 언급한 사실은 언약생활(부모와 자녀와 함께)을 그가 의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이 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자녀들은 종종 근본적인 회심의 경험에 없을 것이다. 성령은 그들을 복음의 진리와 언약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책임을 깊이 깨닫도록 은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시대에 이방인들이 해야 했듯이 (살전 1:9) 그들의 우상을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매여서”(갈 4:3) 해야 했듯이 의의 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세례의 약속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듯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확신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언약을 떠나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그가 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한 개인 속에서 성령께서는 개인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또 전적으로 그를 전 생활에 다시 순응시키므로 근본적인 회심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는 언약의 약속을 받지 않고 언약 공동체 생활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전에 가졌던 거짓된 생각들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령은 언약안에서나 밖에서나 은혜로우시다. 그 분은 우리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리라고 기대치 않은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또 능력있게 역사하여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언약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령은 지금도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심판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것을 “적용

24)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아들을 중생케 하실 수 있다. Charles Hodge가 쓰기를 “……구속의 은혜는……유아들이 세례 받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가하는데 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온 성품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틀림없이 이것은 종종 일어난다(! 필자註)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세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의 세례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한다.”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3 (London : James Clarke, 1960 ; orig. ed. 1873) p.590).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과 즐거움을 성령의 사역으로 본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다. 이것은 29문답에 설명하고 있다.

문29.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있게 적용함으로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양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구속의 “사는 것”(buying)과 이 구속을 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sup>25)</sup> 예수 그리스도께서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다. 우리가 비록 영원한 죽음의 맷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믿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속으로 자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속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적용하는 구속의 사역은 엄밀히 성령의 사역이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선물을 “사셨다”. 그러나 이 선물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주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문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자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자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런 성령의 첫째 사역을 또 다르게 묘사하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한다. 믿음은 택자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엡 2:8).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구주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졌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상실

25) 구원의 적용(applicatio Salutis)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였다. Heinrich Heppe가 그 접근 방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택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 자체의 사역에 뒤따라 오는 것인데(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그것을 시행하신 이후) 그것은 단지 주관적으로만 구원의 적용가 운데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후자는 근본적으로 전자에 근거한다.”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E.Bizer, rev. and ed.;G.T.Thomson, trans.;Grand Rapids:Baker Book House,1978;reprint of 1st ed.,1950; 원래 독일어 판은 1935년임)p.510)

함으로써가 아니라 신뢰와 상호간의 사랑의 깊고 깨뜨릴 수 없는 관계에 의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물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방편은 오직 믿음뿐이다.

소요리 문답이 성령의 이런 우선적인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문31. 효력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효력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

문32.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답.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생에서 이와 더불어 받는 여러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익을 받게 된다.

문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써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되는 것이다.

문34.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써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볼 때 효력있는 부르심이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결정을 이루는 사역임을 깨닫는다. 여기서 “사역”이란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효력있는 부르심의 “사역”이나 과정은 그 결과로서 칭의와 양자됨의 “사건”(단회적)을 수반한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 연합의 순간(과정이 아님) 칭의를 받고 또 양자가 된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신자의 삶속에 반복할 수 없는, 단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단 한번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의롭다 한 행위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양자가 된 이후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모든 특권을 가진 하나

님의 양자로서 살아간다.<sup>26)</sup>

칭의와 양자됨이 하나님의 “합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법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양자라고 선언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언약속에 있는 자나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은 그들의 칭의와 회심의 시기 문제이다. 만일 모든 신자마다 역사의 어느 특별한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 때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가? 때때로 이것은 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와 그 행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령은 신비하게 운행하시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 개인의 삶 속에 오신다.<sup>27)</sup> 우리가 주를 알고 믿음을 가지며 의롭다 함을 받고 양자가 되었음을 기뻐하자. 그러면 주를 찬미하는 중에 연대기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를 요약하자면 신자의 삶 속의 성령의 첫째 사역은 그가 언약의 자녀이든 아니든 간에 그 배경속에서 나타남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26) 이 놀라운 양자됨의 교리가 이 시대에 무시되어 온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의 완전한 진술에 귀를 기울이라.

<제12장 양자됨>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혀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에 들게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정계를 받는 것처럼 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벼랑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왜 이 진리를 우리의 강단에서 더 많이 선포하지 않는가?

27) 우리는 사람마다 “회심”이라는 연판에 맞추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John Murray에 의하면 어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참된 신자일지라도 “지식과 은혜에 있어서 미성숙” 할 수도 있다. 어떤이는 한번도 중생의 “폭발적인 체험”을 가진 적이 없다. “어떤 신자들의 경험은 너무 절친적이어서 그들이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모른다……” 때때로 믿음에 대한 완전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실제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한다”고 한다.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Vol. 2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1977) p.266)

유형의 사람들에게 이 첫단계에서 성령에 의한 구속의 적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 함을 받고 양자된 것을 의미한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 6. 그리스도인 속의 성령의 사역 : 그 중간과 마지막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 사역의 중간과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다. (35~38 문과답)

문35.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행위가 아님, 펠자註)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좋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이것은 과정이다. 펠자註)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죄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되는 것이다.

문36.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폐락과, 은혜의 더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문37.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다.

문38.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참된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이전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창의 롬 5:1, 갈 1:16)고 선언하시고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을(양자됨 롬 8:15) 뿐만 아니라 중생(요 3:3)과 성화의 과정(엡 4:20~24)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재림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화될 것인데 그 때 우리는 영육간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8) 우리의 “영화”는 재림(parousia) 때 속한 것이다. Vos는 이렇게 썼다. “영광은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영광(doxa)은 계시의 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날

###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이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구원(칭의와 양자됨)으로 들어가는 단회적인 사건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는 긴 과정(성화)을 대조시키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모든 신자로 칭의를 받는 순간 동시에 거룩하게 된다(고전 1:2)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는데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계속된다. 믿음은 죄와 사탄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롬 6:12, 앱 6:12). 또한 믿음은 이해와 지혜를 증가시키는 가운데 사는 삶이다(엡 1:17~23). 그것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사는 삶이지 이미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다(빌 3:12~15).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은혜와 능력과 위로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신다(요 7:38, 39, 14:16~18).

성화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는 죄와 평생동안 싸우는 것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감리교와 찰스 피니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거부한다.<sup>29)</sup> 찰스 웨슬리는 18세기에 완전주의를 가르쳤고 피니는 계속해서 이것을 19세기에 가르쳤다. 그들에 의하면 신자들이 거듭날 때 그들은 “성령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는 죄짓지 않을 능력을 가지는 은혜의 두번째 경험이라 한다. 웨슬리와 피니에 따르면 이 “전적 성화”의 체험은 교회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한다. 이상하게도 웨슬리와 피니는 그런 “완전한” 신자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결국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알미니안주의자였다!

개혁주의 신조,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와 이 모든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은혜의 두번째 역사”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거부해왔다. 개혁주의 신도와 장로교, 개혁교회와 모든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령의 처음 사역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양자됨의 경험을 하게끔 한다. 이 일이 있은 다음 성령께서 우리속에서 점진적으로 그의 성화의 사역에 의해서 일하신다. 어떠한 신자도 그가 죽을 때 까지(그의 영이 “거룩으로 온전해질” 때)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

것이라 한다. 신자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적용은 두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육체적인 것과 속 사람의 영광이 있다. 이 양자에 대해서 성령은 그 창조와 시여를 위한 대행자이시다.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en doxei) 다시 산다. (고전 15:43) (The Pauline Eschatology, p.314).

29) 비록 Finney(1792~1875)가 1821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받았지만 그는 결코 개혁주의적 확신을 갖지 않았다.(목사 된 후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읽었을 때 그가 말하길, “나는 절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인류에게 그런 교의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문서에 대해 존경심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cited in Martin E.Marty, *Righteous Empire: The Protestant Experience in America*(New York:The Dial Press,1970)p.86).

고 마침내 성화의 과정의 완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할 것이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B.B. 워필드는 완전주의를 비판하는 한 책을 썼는데 그것을 “완전주의”(Perfectionism)라 했다.<sup>30)</sup> (1958, 워필드 자신은 1921년에 죽었지만) 그는 19세기 미국의 완전주의(“더 높은 수준의 생활”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령안에서의 삶이 죄와 투쟁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울 자신은 벨립보서 3:12에서 여기에 대해 말하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죽어야겠노라”라 했다. 또 요한은 요한 1서 1:8, 9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썼다. 아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조차도(엡 5:18) 여전히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할 죄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양자된 자녀이다. 필자註)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운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tas hamartias hēmōn) (눅 11:2~4)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선교사, 신학자들은 항상 그들이 날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강조해왔다. 사람들이 “은혜의 두번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그러나 성령안에서의 삶은 그것이 비록 매일 실패하는 연속적인 투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기쁨과 성장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전투에서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다! 여기서 성령께서 격리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sup>31)</sup> 그 분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활기있게 세워감은

30) B.B.Warfield, *Perfectionism*(S.G.Craig, ed.:Philadelphia:Presbyterian and Reformed,1967). 특히, “The Theology of Charles G.Finney”, 라는 장(章)을 보라. Warfield에 의하면 Finney의 사상은 “The Higher Movement, the Keswick Movement, the Victorious Life Movement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완전주의자 교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31) 칼빈은 “교회의 거룩”에 관한 부분에서 (기독교 강요4, 1, 17)에 배소서5:25~27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ழ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2:19~22; 나는 “성령안에서”를 강조한다).

우리는 함께 세워졌고 함께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성령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성령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안에서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있는 삶! 화평, 확신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충만하여 그 경험에 얼마나 놀라우며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자가 오로지 함께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운데 계시도다(엡 4:4~6)

우리가 이 즐거운 현실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자. 그분은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것을 언젠가 완전케 하실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재림때에, 필자註)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5~27)<sup>32)</sup>

그 때에 구속은 완전히 “적용”될 것이고 완전은 실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실재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주름을 펴고 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교회의 거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날마다 전진하지만 아직 거룩의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Vol. 2, p.1031).

32) 우리가 앞의 각주에서 보았듯이 칼빈은 이 귀절을 과거와 미래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그 귀절의 첫번째 의도는 “그것을 자기 앞에 세우사”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듯이 재림의 때인 미래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만이 교회는 어떠한 “티”나 “주름”도 전혀 갖지 않을 것이다.

## 특집 : 성령과 삶

# 성령세례 (Holy Spirit-Baptism)에 대하여 \*

연구위원회

## I.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과 그 중요성

신약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명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성경은, ‘성령’과 ‘세례’를 직접 관련시켜 말 할 때는 항상 동사 *βαπτίζω*와 함께, ‘동인’(혹은 ‘행위자’: agent)를 나타내는 전치사 *ἐν* (“…에 의해”: ‘by’)가 아니라, 전치사 *εἰν* (“…으로”, 혹은 “…로”: ‘in’ 혹은 ‘with’)을 동반하여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βαπτίζω εἰν πνεύματι αἵγειω* (‘성령으로’: ‘in’ or ‘with’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한글로 표현된 ‘성령세례’(‘Holy Spirit-Baptism’)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오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표현이다. ‘성령세례’라고 할 때 마치 성령이 ‘동인’(행위자)이 되어 ‘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강조 되어 있다. ‘성령세례’에서의 ‘동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심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성령세례’ 용어는 어디까지나 ‘ ’속에 넣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령세례’에 대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1) 복음서

마 3:11—“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αὐτὸς ὁ ὑδάς βαπτίσει εἰν πνεύματι αἵγειω καὶ* ...)

• 막 1:8—“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 뷔 3:16—“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께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 본 원고는 안영복 교수의 ‘성령론 이해’에 대하여 본 신학대학원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전체교수회의 토론후 우리학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이다. (연구위원: 이근삼, 고재수, 박도호, 이승미 교수)